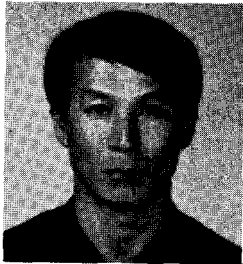


# 낙농육우산업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김진황

경기 안성 두아름목장

**막은** 해가 솟았다. 아쉬움만 남긴채 이제 다시금 열심히 살아야할 새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맞서 시위와 결의대회등을 통해 크게 얻은것은 없었으나, 우리도 모일 수 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해 준 88년 한해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각자 맡은바 일에 대한 욕구와 주장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분출됨에 있어 올 한해는 내 몫을 찾는데 분주해 질것 같다.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고 우리의 정당성을 요구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우리도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길 기다릴수는 없다. 협회를 통한 단결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한해이다.

“家和萬事成”이라고 하듯 한 가정이 일어남에 있어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따름이 으뜸이듯이, 이제 기사년은 협회를 이끌어가는 가족들이 술선수범하여 家和萬事成하길 바란다.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서 있을때 우린 협회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감이 뿌리가 되어 좌절과 울분으로 얼룩진 낙농

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구심점이 되리라 믿는다.

물가상승과 노임인상등 여러가지 제반사항 악화를 어려운 상황속에 있는 낙농인에게는 헤쳐나가야 할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원유가 인상에 대한 관철이 그렇고, 밀려드는 수입개방 압력에 투쟁함에 있어 구심점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협회를 통한 주장은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그 힘은 어떤 결의대회건 구심점을 중심으로한 백만이상의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누구든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하지 않았는가? 살아 남기 위해선 우린 힘을 합쳐야 하고 분열된 소리가 아닌 하나의 힘으로 응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몸치기에 힘쓰고 협회는 구심점 역할에 공인의 입장으로 봉사하는 자세에 인식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최루가스에 눈물 흘리며 목매어 반대하던 수입 쇠고기가 수입 된것도 통탄스럽건만 나의 발상에 한우 고기로 둔갑되어 오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찌 생각해야 하는가!

부디 모여라! 한곳으로 — 낙농인들이여!

잃었던 우리의 것을 되찾아야하고 누적된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만 한다. 이 모든 사실을 낙농·육우인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며 최대공약수를 찾는 역할을 89년 “낙농육우협회”가 충실히 해나가기를 감히 부탁드린다.

89년 기사년을 맞이하여 낙농인가족 모두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